#### 하루를 시작하며



허경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지난 10년간 전기차 민간보급을 선 도하며 대중화를 이끌었던 전기차 엑스포가 막을 내렸다. 올해는 모빌 리티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란 주제로 전기선박 과 도심항공교통(UAM), 농기계 전동화 등 전기차를 뛰어넘는 또 다른 시작을 선언했다.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에 지속가능한 방점 을 찍은 것이다.

초기에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전기차 상용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제주가 전기차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 이웃들의 응원이 아름다운 5월에

데 지리적, 산업적으로 열악한 조건 의 한계도 작용한 듯 보였다. 그러 나 대중교통차로제에 적합한 양문형 도어 전기버스와 도로청소용 전기차 의 출현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전기선박의 야외전시와 한국전기선 박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창립포럼도 해상교통 전동화 역시 목전에 임박 해 왔음을 예고하듯 뜨거웠다.

전기차엑스포는 시작부터 세계적 인 민간경제회의체 스위스의 다보 스포럼을 표방해 왔다. 신차모델의 런칭 위주인 모터쇼와는 다르게 세 계전기차협의회(GEAN)를 주축으 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퍼런스 섹션과 비즈니스 미팅을 차별화했다. 특히 이번에 개 최된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 전기차 볼거리 전시는 대폭 줄었다. 업지원 프로그램)대회는 유니콘을 향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마중 물로서 향후 엑스포가 가야 할 방

향 설정과 정체성 재정립에 주요 모티브가 됐다.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은 유네 스코와 공동으로 국제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기차의 사용이 생물권 보전지역에서의 기후변화와 대기질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엑스포 개최와 함께 한 국제환경기구의 첫 출현은 그동 안 전기차 사용을 권장하고 세계환 경수도를 꿈꿔왔던 제주에게 상당한 의미 있는 출발로 보여 진다.

오래전 주민이 하나둘 떠난 사람 이 그리운 섬 가파도에 봉사를 가 게 되면서 뜨거운 뙤약볕과 매서운 칼바람을 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전환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모두 순수전기차로 바꾸는 모험을 함께 시작했던 국제녹색섬포럼, 섬환경 에 대한 이해와 주민과의 교류로 사람이 찾아오는 녹색 섬 가파도의 탄생과 전기차의 다보스포럼을 꿈 꾸는 국제전기차엑스포의 시작을 함께하는 원동력이 됐다. 당시엔 논 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향후 카본프리 아일 랜드 제주의 모토가 됐고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발원지가 됐다.

이제 일상의 기후변화는 기후위 기로 나아가 기후재앙으로 확산되 고 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에너지 대전환과 교통운 송 수단의 전동화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가 됐다. 이를 먼저 인 지하고 고민해 온 제주도의 탄소 저 감 노력은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 례이다. 미래 세대에 귀중한 자산이 될 가파도에서 시작된 녹색 섬에 대 한 이해와 실천, 제주라는 불모지에 서 발아한 전기차에 대한 도전과 열 정, 지구를 향한 민간의 노력에 이 웃들의 응원이 아름다운 5월이다.

#### 사설

### 원포인트 임시회서 추경안 처리 협치하라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치명적 인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는 응급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적 기에 투입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 혈액이 실핏줄을 통해 온몸의 조직에 산소와 영양 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제주도가 편성한 올해 첫 추 경안은 심사보류됐다. 본회의도 아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보류 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민 생경제 활력이라는 추경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제주도와 도의회 가 갈등만 부각된 졸속 결정이 었다. 양측 간 소통과 협치 없이 기 싸움만 벌인 결과다. 추경안 심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예산집행은 미뤄지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 게 됐다. 당장 제주도가 추진하

됐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 원, 탐나는전 현장 할인, 공공근 로사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발 목을 잡힌 것이다. 천원의 아침 밥 지원 사업은 도내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 학생들의 기대와 호응이 높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장 할인이 23일 0시부로 중단되면 서 도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제 와서 추경 파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소모 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 미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 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 세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게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 의다.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려던 민생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서라도 통 큰 협치를 해야 한다.

### 원전 오염수 대처,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저지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 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질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갈 방침이다. 로도 걸러지지 않아 방사능에 노 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한・일 해협 연 안 5개 시도협의체인 부산·울 능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갈치. 고등어·참조기 등 제주산 수산 물 15종에 400건 이상 방사능 검 사도 추진 중이다. 위판장 신속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료를 수거해 검사 결과를 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주 알리고 있다. 또 수산물 먹거 리 안전 및 소비위축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전 오염 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 수 방류 전·후로 나눠 대응을 강 겠는가.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 화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 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 류 시기가 임박하면서 제주도민 적이다. 제주도는 25일 도내 야 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 권 정당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 시 도두 어민들은 엊그제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원전 오염수 바다 산·경남·전남과 연대해 공동 대 방류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응에 나서고 있다. 수산물 방사 실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민들의 피해는 가늠할 수 없 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그런 데도 정부는 어업인 피해에 대 한 대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원전 오 염수 문제를 이렇게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나.

#### 열린마당

#### 방향제 말고 차량용 소화기 어떠신가요?



조 연 재 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가족,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하기 좋 은 계절인 만큼 차량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운전 중에는 다 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차량 화재다.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면 전 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빨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긴급한 화재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 응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 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 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길 바란다.

차량 내 설치할 때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 치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소화기 사용방법은 빠르 고 간단하다. 'P.A.S.S'라는 원칙 을 따라 Pull(핀 뽑기), Aim(소화 대상 향하기), Squeeze(손잡이 누 차량 화재 특성상 대부분 달리는 르기), Sweep(좌우로 휘젓기). 이 4단계를 생각한다면 소화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만큼의 효과가 될 수 있 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

뉴스-in

#### 제주도 개발 전자해양부이 우수사례

행안부, 경영개선 기여 평가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한 제 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 행정안 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

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 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 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 를 받음.

고형범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장은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 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 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부이 훼손 시 어망 위치를 찾는 데 과다하 게 시간을 소비했다"며 "전자해 양부이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첨언. 고대로기자

○…코로나19로 잠정중단됐던 서귀포시민 화합한마당 축제가 오는 28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에서 4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으로 '예열' 중.

서귀포시민 화합한마당 '예열'

23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연 합청년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회째로 17개 읍면동 주 민 4000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입장식 퍼포먼스 를 시작으로, 줄다리기와 800m 계주 대항경기, 홍보부스, 어린 이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며 관심이 집중

허은구 서귀포시연청 회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서귀포 시민이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진다"며 "지역 청년들이 준 비한 행사가 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언.백금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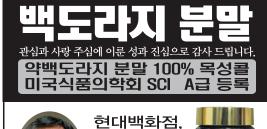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묘지후손찾기

-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전문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9

30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 OF Ы 방수전문건설업 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함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함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함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 가능)
-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제 (별장 건축 가능)

010-7328-1107, 010-6275-5200

# 으처하과

####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 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 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 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윌한

750-2828

서귀포지사

732 -5552



**7** 756-2833